

『친밀한 가해자』 독서 활동지

[학습 목표]

- 소설 속 인물의 관계와 갈등 구조를 파악하고, 사건의 흐름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 등장인물의 선택을 근거를 들어 평가하고, 다른 선택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 방관과 책임의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성찰하고, 성장의 의미를 자신의 삶과 연결 지어 설명할 수 있다.
-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가해’의 의미를 이해하고,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태도를 성찰할 수 있다.

[차시별 활동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비고
1	읽기 전	[활동 1] ‘친밀한 가해자’라는 제목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생각 적기 [활동 2] 상황에 따른 행동 선택 및 생각 나누기	모둠 활동
2	읽기 중	[활동 1] 인물 관계도 그리기 [활동 2] 소설의 주된 갈등 찾기 [활동 3] 소설 속 갈등에 주목하며 소설의 구성 단계에 따라 작품의 내용 정리하기 [활동 4] 사건의 흐름에 따라 ‘준형’이 겪은 갈등의 정도를 그래프로 표현하기, ‘준형’의 심리 변화 분석하기	
3	읽기 중	[활동 5] 등장인물의 행동 평가하기 [활동 6] ‘알’의 의미를 해석하고 자신의 삶 성찰하기	짝 활동
4	읽기 후	[활동 1] 등장인물의 행동과 관련된 논제로 토론하기	모둠 활동
5	읽기 후	[활동 2] 소설 속 ‘친밀한 가해자’가 누구인지 정리하기, 내가 ‘친밀한 가해자’였던 경험 성찰하기 [활동 3] 등장인물에게 편지 쓰기 [활동 4] 뒷부분에 이어질 이야기를 상상하여 이어 쓰기	
6	심화 활동	영화 「우리들」 감상하기	

1차시 - 읽기 전 활동

1. ‘친밀한 가해자’라는 제목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 봅시다.

친밀하다: 「형용사」 지내는 사이가 매우 친하고 가깝다.

가해자: 「명사」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해를 끼친 사람.

- ‘친밀한(친밀하다)’과 ‘가해자’는 서로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나와 ‘친밀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을 떠올리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

- ‘가해자’로서 누군가에게 상처(피해)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

- ‘친밀한 가해자’라는 제목을 보고, 소설의 내용이 어떠할지 상상하여 써 봅시다.

⇒

2. 다음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요? 여러분의 선택과 그렇게 선택한 이유에 대해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상황① 나의 실수로 누군가가 다쳤는데 다친 사람을 포함하여 아무도 내가 그랬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 주변에는 CCTV도 없는 상황이다.

☐ 사실대로 말한다. 왜냐하면 _____.

☐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_____.

상황② 나와 친한 친구가 의도치 않게 어떤 잘못을 하게 되었는데, 내가 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되었다.

☐ 친구의 잘못을 밝힌다. 왜냐하면 _____.

☐ 친구의 잘못을 숨겨준다. 왜냐하면 _____.

2차시 - 읽기 중 활동

1. <보기>를 참고하여 인물 관계도를 그려 봅시다. (화살표를 활용하여 등장인물 간의 관계나 감정을 표시할 것)

<보기>	
* 등장인물	- 준형, 준형 아빠, 준형 엄마, 채원, 현서, 강 형사, 부암동 할머니, 아래층 할머니
* 관계나 감정을 나타내는 말	- (예시) 갈등, 애정, 기대, 부담, 책임, 신뢰, 실망 등

2. 소설의 주된 갈등을 찾아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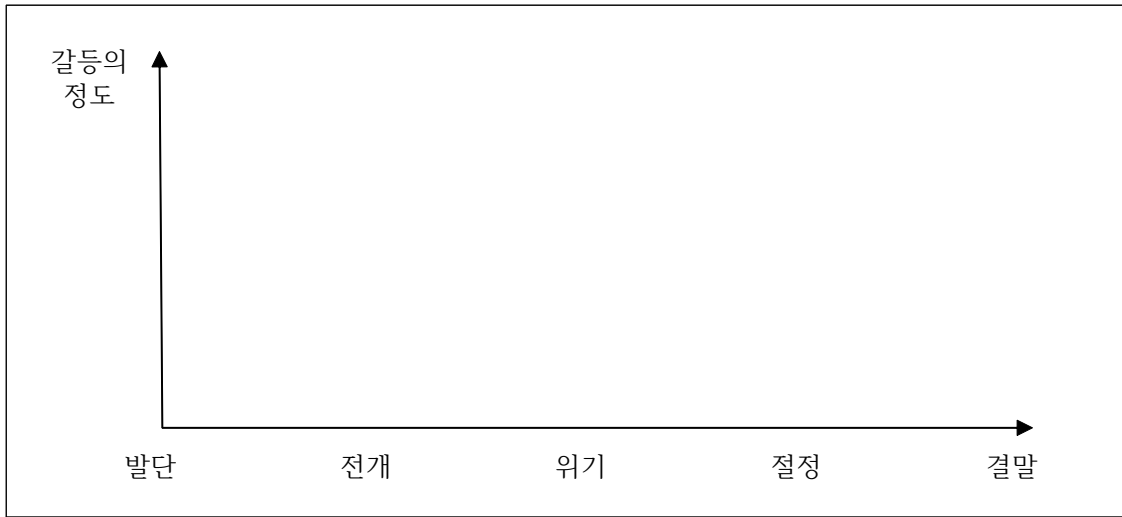
내적 갈등	준형의 머릿속 생각 양심 ↔ 비양심 선 ↔ 악	()는 마음 ↔ ()는 마음
외적 갈등	준형 ↔ ()	() 문제로 인한 말다툼, 준형이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일어난 실랑이
	() ↔ ()	자식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입장 차이
	() ↔ ()	진실을 숨기려는 사람 ↔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

<도움말>	
✓	‘내적 갈등’은 한 개인의 내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로, 한 사람의 머릿속 생각이 나 마음이 대립하는 것을 찾으면 쉬워요.
✓	‘외적 갈등’은 ‘개인과 개인의 갈등’, ‘개인과 사회의 갈등’, ‘개인과 운명의 갈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만 찾아봅시다. 쉽게 말하자면 두 인물이 서로 뜻이 달라 대립하는 것을 찾으면 돼요.

3. 소설 속 갈등에 주목하며 소설의 구성 단계에 따라 작품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발단	• 준형은 부유한 ()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성적도 좋고 친구 관계도 원만한 모범생이다. 하지만 내면에는 ()는 부담감과 () 장애가 있는 동생 ()에 대한 불만, 동생을 챙기느라 자신에게 소홀한 ()에 대한 원망을 쌓아 간다. • 아래층 할머니와는 ()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
전개	• 준형이 비상계단에서 ()다가 ()에게 발각된다. • 말다툼과 실랑이 끝에 ()이/가 계단에서 (). • 준형은 ()는 오해를 받을까 봐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 • 준형의 ()은/는 사고를 알게 되지만 신고해야 할지를 두고 갈등하고 망설인다.
위기	• 비상계단에 쓰러져 있던 아래층 할머니가 발견되어 구급 대원들에게 실려 가고, ()에 대비해 ()은/는 준형에게 심문 연습을 시키며 준형을 훈련시킨다. • 준형은 겉으로는 일상을 유지하지만 내면은 ()(으)로 점점 무너져 간다. • 아래층 할머니의 스웨터에서 ()가 발견되고, 탐문을 통해 () 문제로 인한 갈등에 대해 알게 된 강 형사는 단순 사고가 아닌 범죄 사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착수한다. • 준형과 준형 아빠는 ()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생각까지 하고, ()은/는 이에 반대하며 서로 말싸움을 한다. • 사건 당일 ()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정보를 얻은 강 형사가 준형의 집으로 찾아오고, ()에 간 적 없냐는 강 형사의 질문에 준형은 ()고 거짓 진술을 한다.
절정	• 학교에 빠진 준형이 걱정된 ()은/는 준형의 집을 찾아가고, ()의 ()에서 아래층 할머니의 사고가 일어난 순간을 촬영한 영상과 ()을/를 희생양으로 삼아 진실을 은폐하려는 준형이네 가족의 대화가 담긴 영상을 발견하게 된다. •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된 ()은/는 큰 충격을 받고 괴로워하다가 ()을/를 보내며 준형에게 진실을 밝힐 것을 권유한다. • 누군가가 자신의 비밀을 알고 ()하고 있다고 받아들인 준형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한다. • 쪽지를 보낸 사람이 ()였다는 것을 알게 된 준형은 충격을 받는다. ()야 한다는 입장과 실수를 했을 뿐인데 그로 인해 인생이 잘못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두 사람은 크게 다툰다.
결말	• 현서는 자기 ()와/과 달리 준형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사고 당시 ()이/가 오히려 준형에게 잘못이 없음을 밝혀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을/를 복돋는다. • 준형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을/를 지기 위해 스스로 경찰서에 가겠다고 결심하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서며 오히려 마음이 ().

4. 사건의 흐름에 따라 '준형'이 겪은 갈등의 정도를 그래프로 표현해 봅시다. '준형'의 심리 변화 내용도 메모해 봅시다.



<도움말>

- ✓ '갈등의 정도'란 말이 잘 와닿지 않는다면, '준형'이 느낀 불안함의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3차시 - 읽기 중 활동

5. 등장인물의 행동을 평가해 봅시다.

- 1) 19~32쪽을 읽은 뒤 '준형'의 선택을 분석하고 그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어 봅시다.
그리고 내가 '준형'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짝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상황:

준형은 CCTV가 없는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아래층 할머니와 실랑이를 벌이게 된다. 아래층 할머니는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려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며 담배를 내놓으라고 한다. 실랑이 도중 붙잡힌 팔을 빼려고 몸부림치다가 아래층 할머니가 계단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다. 평소 아래층 할머니와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했던 것 때문에 준형이 할머니를 밀었다는 오해를 받을지도 모른다.

- '준형'은 어떤 선택을 하였나요?

⇒

- '준형'이 위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준형'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다른 선택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 내가 '준형'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33~108쪽을 읽은 뒤 사고 이후 '준형'의 부모가 보인 입장을 분석하고 평가해 봅시다.

(1) 입장 정리하기

	준형 아빠	준형 엄마
사고를 알게 된 후 보인 반응 및 태도		
준형의 자수에 대한 입장	☐ 찬성 ☐ 반대 그 이유?	☐ 찬성 ☐ 반대 그 이유?
채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대한 입장	☐ 찬성 ☐ 반대 그 이유?	☐ 찬성 ☐ 반대 그 이유?
걱정하는 것		
중시하는 것		

(2) 평가하기

① '준형 아빠'의 선택은 정당한가?

● 근거 1

⇒ _____

● 근거 2

⇒ _____

● 나의 평가

⇒ _____

② '준형 엄마'의 선택은 정당한가?

● 근거 1

⇒ _____

● 근거 2

⇒ _____

● 나의 평가

⇒ _____

3) 128~188쪽을 읽은 뒤 ‘현서’의 선택을 분석하고 그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어 봅시다. 그리고 내가 ‘현서’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짝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어. 언제까지 숨길 거야?	비상계단을 잊지 마.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있겠어?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어. 완벽한 거짓말도. 언제 진실을 말할 거야?
-------------------------------	---	---

● ‘현서’가 익명으로 쪽지를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서’가 ‘준형’에게 직접 물어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 ● 익명 쪽지를 받은 ‘준형’의 반응은 어떠하였나요? ‘현서’의 쪽지가 없었다면 ‘준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 ‘현서’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다른 선택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 내가 ‘현서’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6. 결말 부분에서 ‘준형’의 선택을 참고하여 ‘알’의 의미를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1) 질문에 답하며 결말 부분에 나온 ‘준형’의 선택에 대해 분석해 봅시다.

[184쪽 ~ 185쪽]

준형은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았다. 더는 거짓말을 방패 삼아 자신을 지키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나 아빠가, 아니, 모두가 실망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에게 더 이상 실망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186쪽 ~ 188쪽]

준형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랐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거실에서 채원이가 소리 지르며 뛰는 모습, 아빠가 웃으며 출근하는 모습, 가족 모두가 모여 밥을 먹는 시간, 친구들과 PC방에 몰려가서 게임을 하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던 시간이 그리웠다. 어쩌면 그런 날이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병원에 있는 할머니에게도 그럴 것이다. 이제야 알았다.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두려움과 후회가 뒤엉킨 감정이 밀려왔다. 당장이라도 뒤돌아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제 더는 그럴 수 없었다. 그러지 않기로 했으니까.

경찰서 문 앞에 서자 다리가 무거웠다. 푸른 간판이 자꾸 흐릿하게 보였다. 부모님이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혼자 가겠다고, 나중에 변호사가 필요하면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상 경찰서 앞에 오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문 하나만 열면 모든 게 끝날 텐데, 끝난다는 게 무서웠다.

‘두려워.’

마음속에서 두렵다는 말이 들려왔다.

‘그냥 진실을 말하기만 하면 돼.’

또 다른 말이 속삭이듯 들려왔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부암동 할머니였다. 지금쯤 할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전화한 게 분명했다. 준형은 한동안 핸드폰에 뜬 할머니라는 글자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전화를 받기가 두려웠다. 전화를 받고 나면 다시금 할머니 뒤에 숨을지도 몰랐다. 아빠가 할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았듯이, 자신도 똑같이 할머니의 눈치를 보며 흠결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릴지도.

여기서 돌아서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 수 있을까?

준형은 할머니의 전화를 끝내 받지 않았다. 흠결 없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조금씩 더 나아지는 수밖에 없다. 경찰서에 가겠다고 결심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날의 기억이 또렷해졌다. 나는 할머니를 밀지 않았다. 그럼에도 할머니가 계단 아래로 떨어지는 걸 본 순간 두려웠다. 숨기고 싶었다. 할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보다 내가 먼저였다. 그때부터 모든 게 틀어졌다.

세상에 완벽한 거짓말은 없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보통의 나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으니, 지금이라도 돌아갈 곳을 만들어야 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채로 옷을 입고 다닐 수는 없다.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끼워야 한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었다. 그러나 저 태양이 곧 구름을

걸어 내고 빛을 드리울 것이다.

‘이제 흔들림 없이 태양을 기다릴 거야.’

준형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경찰서 문을 밀었다. 경찰서 안으로 한 발 내딛자,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 부모님이 경찰서에 같이 가겠다고 했음에도, ‘준형’이 혼자 경찰서에 가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준형’이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에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

- ‘준형’이 ‘부암동 할머니’의 전화를 끝내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할머니의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

- ‘준형’이 경찰서 안으로 들어서자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가벼워지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준형’이 자수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

2) 질문에 답하며 ‘알’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100쪽 ~ 103쪽]

“싱클레어는 빛과 어둠의 세계를 오가며 성장하는데 그렇다면 ‘악’이란 사람에게 원래 있는 걸까?”

(중략)

준형은 어쩌면 지금 자신이야말로 선과 악 사이를 오가며 싸우는 중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가 하루빨리 무사히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과 깨어나지 않고 이대로 모든 게 조용히 덮이면 좋겠다는 마음이 전부 제 속에 있었다. 둘 중 어떤 마음이 더 큰지도 알 수 없었다. 그저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지 않았다면 결국 늪에 빠져 허우적댔을 거야. 자기 안의 진짜 모습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맞아. 자신의 인정하고 싶지 않은 면까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겠지. 난 자신이 없어.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게 성장 아닐까?”

그런 말을 꺼내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겠지. 난 못 하겠어.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 자신을 속이는 행위야.”

조별 토론에서 아이들이 던진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중략)

“이제 『데미안』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을 뽑아 보자.”

선생님의 말에 아이들은 각자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을 뽑았다. 준형은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라는 문장을 옮겨 적었다.

“한 세계를 깨뜨린다는 게 뭘까?”

준형은 그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실제로 새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엄청 몸부림친대. 계속 알 속에서 살 수는 없잖아. 알을 부수고 나와야 진짜 세상을 만난다는 말 아닐까?”

현서의 말에 준형이 중얼거렸다.

“그럼 알은 결국 스스로를 가뒀던 곳이네.”

[170쪽]

“선생님이 어릴 때 살던 집에는 왕거미가 많았어. 근데 왕거미란 놈이 진짜 이상한 게 밤에만 활동하고 해 뜰 무렵에는 거미집을 그대로 방치하고 숨어 버려. 낮 동안에는 바람 때문에 거미집이 꽤 많이 부서지는데, 신기한 게 뭘 줄 아니? 밤에 왕거미가 다시 나타나.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부서진 거미줄을 입에 넣고 있다가 다시 새 거미줄을 뽑아 내. 그럼 더 튼튼한 그물을 칠 수가 있어. 놀랍지 않니? 생각해 보면 사람도 그런 것 같아.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견디고 해결하면서 더 단단해지는 게 아닐까?”

- ‘새’에게 ‘알’은 어떤 공간일까요?

⇒

- ‘준형’이 깨뜨려야 했던 ‘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

- ‘선생님’이 들려준 왕거미 이야기를 참고할 때, ‘준형’이 ‘알’을 부수고 나와 만나게 될 진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

- ‘준형’이 결국 ‘알’을 깨뜨렸다고 생각하나요? 활동 1)을 참고하여 그 이유를 적어 볼까요?

⇒

3) 활동 1) ~ 2)를 바탕으로 질문에 답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 내가 깨뜨려야 할 ‘알’은 무엇일까요?

⇒

- ‘알’ 속에 갇혀 자신의 책임이나 자기 안의 진짜 모습,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면을 피하려고 했던 경험을 떠올려 볼까요?

⇒

- ‘알’을 깨뜨리고 나와 진짜 세상을 만나고 더 단단해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나에게 ‘성장’이란 어떤 의미인지 적어 볼까요?

⇒

4차시 - 읽기 후 활동

1. 소설 『친밀한 가해자』 속 등장인물의 행동과 관련된 <보기>의 논제로 토론해 봅시다.

<보기>	
●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진실 은폐)은 정당화될 수 있다.	
● 의도가 없는 행위에도 책임이 있는가? / 의도와 결과 중 무엇이 책임 판단에서 더 중요한가?	
● 익명으로 진실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정당한가?	

1) 모둠 친구들과 함께 표를 채우며 토론을 준비해 봅시다.

<도움말>	
✓	근거를 찾을 때 먼저 소설 속 장면에서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우리 삶과 연계하여 생각을 확장해 보세요.

논제	우리 측 입장	
입론	- 주장	
	- 근거 1 (관련 쪽수: 쪽)	
	- 근거 2 (관련 쪽수: 쪽)	
	- 근거 3 (관련 쪽수: 쪽)	
반론 계획	상대측 예상 주장과 근거	
	우리 측 반론	

2) 토론을 진행한 후, 생각을 정리하고 토론 과정을 성찰해 봅시다.

생각 정리하기
● 토론 전 나의 생각 ⇒ ● 토론 후 나의 생각 ⇒ ● 토론을 통해 생각이 바뀌었거나 더 깊어진 점 ⇒
토론 과정 성찰하기
● 오늘 토론에서 잘한 점 ⇒ ● 오늘 토론에서 아쉬운 점 또는 앞으로 보완할 점 ⇒

5차시 - 읽기 후 활동

2. 소설 『친밀한 가해자』에서는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가해자가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소설 속 ‘친밀한 가해자’가 누구인지 정리해 보고, 내가 ‘친밀한 가해자’였던 적은 없는지 성찰해 봅시다.

1) 표를 채우며 소설 속 등장인물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점에서 가해자인지 정리해 봅시다.

등장인물 = 친밀한 가해자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어떤 말 또는 행동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었는가?	그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부암동 할머니	준형	부암동 할머니는 준형을 흠결 없이 완벽한 아이로 여기며 편애하여, 준형은 할머니의 큰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부담감으로 힘들어한다.	준형에 대한 기대와 사랑

- 2) 등장인물처럼 친밀한 관계의 누군가와 상처를 주고받은 경험을 떠올리며 내가 ‘친밀한 가해자’였던 적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나의 ‘친밀한 가해’ 돌아보기 - 관계 성찰 체크리스트>

※ 해당하는 항목에 솔직하게 체크해 보세요. (✓ 표시)

- ☐ 장난이라며 친구를 놀린 적이 있다.
- ☐ 가까운 사람에게 더 쉽게 짜증을 낸 적이 있다.
- ☐ “너를 위해서야”라는 말로 상대를 압박한 적이 있다.
- ☐ 호의(선의)를 베풀었지만 상대가 상처받은 적이 있다.
- ☐ 정의를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가 상처받은 적이 있다.
- ☐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보다 이해해 줄 것이라 믿고 그냥 넘어간 적이 있다.
- ☐ 상대에게 특정 행동을 기대하며 부담감을 주거나 내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망감을 표현한 적이 있다.

- 3) 활동 1) ~ 2)를 바탕으로 깨달은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 친밀한 관계에서 가해가 더 쉽게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 누가, 언제, 왜 가해자가 된다고 생각하나요? 가해 의도가 있어야만 가해자일까요?

⇒

- 자신이 ‘친밀한 가해자’가 되었던 경험을 돌아보며, 성찰 내용을 적어 볼까요?

⇒ 나는 _____
_____ 적이 있다.
그때는 _____(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_____.
앞으로는 _____겠다.

3. <예시>를 참고하여 등장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은 편지를 써 봅시다.

<예시>

- * 내가 '준형'에게 보내는 편지
- * 내가 '현서'에게 보내는 편지
- * 내가 '준형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
- * 내가 '준형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
- * 내가 '준형'이 되어, '준형'이 '아래층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 * 내가 '준형 엄마'가 되어, '준형 엄마'가 '준형'에게 보내는 편지
- * 내가 '현서'가 되어, 익명으로 쪽지를 보내는 대신 '현서'가 '준형'에게 보내는 편지

To. _____

From. _____

4. ‘이제 흔들림 없이 태양을 기다릴 거야.’라는 준형의 마지막 말에 주목하면서, 뒷부분에 이어질 이야기를 상상하여 소설을 이어 써 봅시다.

준형은 할머니의 전화를 끝내 받지 않았다. 흠결 없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조금씩 더 나아지는 수밖에 없다. 경찰서에 가겠다고 결심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날의 기억이 또렷해졌다. 나는 할머니를 밀지 않았다. 그럼에도 할머니가 계단 아래로 떨어지는 걸 본 순간 두려웠다. 숨기고 싶었다. 할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보다 내가 먼저였다. 그때부터 모든 게 틀어졌다.

세상에 완벽한 거짓말은 없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보통의 나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으니, 지금이라도 돌아갈 곳을 만들어야 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채로 옷을 입고 다닐 수는 없다.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끼워야 한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었다. 그러나 저 태양이 곧 구름을 걷어 내고 빛을 드리울 것이다.

‘이제 흔들림 없이 태양을 기다릴 거야.’

준형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경찰서 문을 밀었다. 경찰서 안으로 한 발 내딛자,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6차시 - 심화 활동: 영화 「우리들」 함께 보기



영화 「우리들」 포스터

출처: 네이버 영화

영화 「우리들」 줄거리

그 여름, 나에게도 친구가 생겼다... “내 마음이 들리니” 언제나 혼자인 외톨이 선은 모두가 떠나고 홀로 교실에 남아있던 방학식 날, 전학생 지아를 만난다. 서로의 비밀을 나누며 순식간에 세상 누구보다 친한 사이가 된 선과 지아는 생애 가장 반짝이는 여름을 보내는데, 개학 후 학교에서 만난 지아는 어떤 일인지 선에게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다. 선을 따돌리는 보라의 편에 서서 선을 외면하는 지아와 다시 혼자가 되고 싶지 않은 선. 어쨌든 관계를 회복해보려 노력하던 선은 결국 지아의 비밀을 폭로해버리고 마는데... 선과 지아. 우리는 다시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출처: 네이버 영화

1. 영화 「우리들」도 소설 『친밀한 가해자』에서처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상처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 「우리들」의 주인공 ‘선’, ‘지아’는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를 지니고 있는지, 그 상처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는지 적어 봅시다. 또한 그 상처가 두 인물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인 장면을 들어 설명해 봅시다.
2. 소설 『친밀한 가해자』와 영화 「우리들」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방관을 통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설과 영화 속 장면을 근거로 들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봅시다.

3. 소설 『친밀한 가해자』를 읽고 ‘성장’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정의를 내려 봅시다. 그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영화 「우리들」의 ‘선’은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지 작품 속 장면을 근거로 판단해 봅시다. 그리고 『친밀한 가해자』의 ‘준형’과 「우리들」의 ‘선’의 성장 모습의 차이를 서술해 봅시다.

4. 소설 『친밀한 가해자』와 영화 「우리들」에서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였는지 서술해 봅시다. 두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관계의 모습에 주목하여, 앞으로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내가 지키고 싶은 태도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2차시 - 읽기 중 활동 [답안]

1. <보기>를 참고하여 인물 관계도를 그려 봅시다. (화살표를 활용하여 등장인물 간의 관계나 감정을 표시할 것)

<보기>	
* 등장인물 - 준형, 준형 아빠, 준형 엄마, 채원, 현서, 강 형사, 부암동 할머니, 아래층 할머니	* 관계나 감정을 나타내는 말 - (예시) 갈등, 애정, 기대, 부담, 책임, 신뢰, 실망 등

2. 소설의 주된 갈등을 찾아봅시다.

내적 갈등	준형의 머릿속 생각 양심 ↔ 비양심 선 ↔ 악	(신고/자수를 해야 한다)는 마음 ↔ (두려움으로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
외적 갈등	준형 ↔ (아래층 할머니)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한 말다툼, 준형이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일어난 실랑이
	(준형 아빠) ↔ (준형 엄마)	자식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입장 차이
	(준형, 준형 아빠) ↔ (현서, 강 형사)	진실을 숨기려는 사람 ↔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

<도움말>	
✓ ‘내적 갈등’은 한 개인의 내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로, 한 사람의 머릿속 생각이 나 마음이 대립하는 것을 찾으면 쉬워요. ✓ ‘외적 갈등’은 ‘개인과 개인의 갈등’, ‘개인과 사회의 갈등’, ‘개인과 운명의 갈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만 찾아봅시다. 쉽게 말하자면 두 인물이 서로 뜻이 달라 대립하는 것을 찾으면 돼요.	

3. 소설 속 갈등에 주목하며 소설의 구성 단계에 따라 작품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발단	• 준형은 부유한 ((부암동) 할머니)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성적도 좋고 친구 관계도 원만한 모범생이다. 하지만 내면에는 (할머니(주변 어른들)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부담감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동생 (채원)에 대한 불만, 동생을 챙기느라 자신에게 소홀한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쌓아 간다. • 아래층 할머니와는 (충간 소음)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
전개	• 준형이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아래층 할머니)에게 발각된다. • 말다툼과 실랑이 끝에 (아래층 할머니)이/가 계단에서 (떨어진다/추락한다). • 준형은 (자신이 밀었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도망친다). • 준형의 (부모)은/는 사고를 알게 되지만 신고해야 할지를 두고 갈등하고 망설인다.
위기	• 비상계단에 쓰러져 있던 아래층 할머니가 발견되어 구급 대원들에게 실려 가고, (경찰 조사)에 대비해 (준형 아빠)은/는 준형에게 심문 연습을 시키며 준형을 훈련시킨다. • 준형은 겉으로는 일상을 유지하지만 내면은 (불안, 죄책감, 두려움 등)(으)로 점점 무너져 간다. • 아래층 할머니의 스웨터에서 (담뱃재)가 발견되고, 탐문을 통해 (충간 소음) 문제로 인한 갈등에 대해 알게 된 강 형사는 단순 사고가 아닌 범죄 사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착수한다. • 준형과 준형 아빠는 (동생 채원)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생각까지 하고, (준형 엄마)은/는 이에 반대하며 서로 말싸움을 한다. • 사건 당일 (비상계단)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정보를 얻은 강 형사가 준형의 집으로 찾아오고, (비상계단)에 간 적 없냐는 강 형사의 질문에 준형은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한다.
절정	• 학교에 빠진 준형이 걱정된 (현서)은/는 준형의 집을 찾아가고, (채원)의 (핸드폰)에서 아래층 할머니의 사고가 일어난 순간을 촬영한 영상과 (채원)을/를 희생양으로 삼아 진실을 은폐하려는 준형이네 가족의 대화가 담긴 영상을 발견하게 된다. •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된 (현서)은/는 큰 충격을 받고 괴로워하다가 (익명의 쪽지)을/를 보내며 준형에게 진실을 밝힐 것을 권유한다. • 누군가가 자신의 비밀을 알고 (협박)하고 있다고 받아들인 준형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한다. • 쪽지를 보낸 사람이 (현서)였다는 것을 알게 된 준형은 충격을 받는다. (자수해/사실을 밝혀/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과 실수를 했을 뿐인데 그로 인해 인생이 잘못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두 사람은 크게 다툰다.
결말	• 현서는 자기 (의도)와/과 달리 준형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사고 당시 (동영상/영상)이/가 오히려 준형에게 잘못이 없음을 밝혀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용기)을/를 북돋는다. • 준형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를 지기 위해 스스로 경찰서에 가겠다고 결심하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서며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다).